

한승원 작가 등단 50주년 중단편집

목선·폐촌 등 '인생의 소설' 13편 수록



아만과 신화
한승원 지음



꽃과 바다
한승원 지음

대담집 '꽃과 바다'도 발간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이한 한승원 작가의 50주년 자신 중단편집 '아만과 신화'가 발간됐다.

한국문단의 거목이자 한국 작가들의 스승이기도 한 작가는 그동안 30여 편의 장편과 80여 편의 중단편, 6권의 시집, 10권의 산문집을 펴낸 만큼 성실한 집필활동을 해왔다. 책에는 한 작가가 발표했던 중단편 중에서 직접 거러 뽑은 인생의 소설들로 정할 수 있는 13편이 수록돼 있다. 데뷔작 '목선'부터 대표작 '폐촌', '해신의 늪', '해변의 길손' 등을 포함해 작가의 예술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러나 다 그리는 것만은 아니다'까지 '아만'과 '신화'라는 두 키워드로 집약되는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만과 신화'에 수록할 작품들을 고르면서 한승원은 작가의 말에서 "내 문학은 인간과 역사의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회고한다. 갈매기의 울음소리에 관한 기원 설화를 차용한 '갈매기'와 바리데기 설화를 모티브로 하는 '어머니' 등 신화적 상상력

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문학은 '폐촌'에서 인간의 폭력적인 역사를 끌어안는다.

이처럼 작가의 문학은 토속적인 고향 바닷가 마을 이야기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근원과 생명력, 에로티시즘과 사머니즘이 소용돌이치는 신화적, 설화적, 환상적 리얼리즘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등단 50주년을 기념하는 대담집 '꽃과 바다'도 발간돼 의미를 더한다. 소설가이자 세계일보 문학담당기자인 조용호 씨와 평론가 장일구 전남대 교수가 직접 한 작가를 인터뷰해 그의 문학 인생과 글 쓰기에 대한 철학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책은 작가의 삶을 지배해온 공간이자 생명력과 문학적 고투의 상징으로서의 '바다', 구원과 에로티시즘의 상징으로서의 '꽃'을 씨앗말과 뿌리말로 상징해 사머니즘, 신화, 불교, 역사, 자연주의, 환상적 리얼리즘까지 오롯이 담아낸다.

작가는 말한다. "개어있는 자만이 우주와 소통할 수 있다. 문학은 우주와 소통하기의 일관이다"라고. <예담·각권 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이 신에게서 돌려받은 최초의 도시

인류의 꽃이 된 도시

피렌체

김혜경 지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마키아벨리, 단테...

앞서 열거한 천재들의 고향은 어디일까? 이들은 동향 출신 예술가들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미를 자랑하며, 많은 이들이 한번 정도 가보고 싶은 도시. 인문주의의 산실로 평가받으며 르네상스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 바로 피렌체다. 이곳은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탁월한 건축물과 미술품을 풍부하게 보존하고 있는 도시다. "르네상스를 통해 인간이 신에게서 돌려받은 최초의 도시"라는 찬사도 결코 부족하지 않는 곳이다.

피렌체의 모든 것을 지적하며 섬세하게 담아낸 책이 출간됐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김혜경 교수가 펴낸 '인류의 꽃이 된 도시, 피렌체'는 지적이고 섬세하게 담아낸 피렌체 인문학 여행서다. 20여 년을 로마에서 유학하며 얻은 다양한 경험이 응축돼 있어 피렌체의 역사와 문학, 종교와 예술을 탐색할 수 있다. 인문주의와 관련해 피렌체에서 만나



피렌체 도시를 가로질러 티레네 바다로 흘러가는 아르노 강.

<호미출판사 제공>

야 할 사람은 단테에서부터 갈릴레이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대장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자가 대학시절부터 20여 년간 로마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인연과 무관치 않다. 저자는 '사람냄새' 그리울 때마다 제 집처럼 피렌체를 드나들며 인간의 삶과 정신을 탐구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르네상스인들은 피렌체에서 어떤 작품을 남겼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렸고, 미켈란젤로는 '다윗'을 조각했으며, 라파엘로는 '주님탄생예고'를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탄생'을 그렸다.

그뿐 아니라 마키아벨리는 이곳에서 '군주론'을 집필했으며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을 기술했다. 브루넬레스키는 피렌체 대성당(두오모)의 '돔'을 설계했다.

저자의 피렌체 여행은 르네상스 속살을 탐색하는 과정이었다. '르네상스 조각들의 신전'이라 할 수 있는 바르젤로 국립박물관에 들러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기베르티, 브루넬레스키, 베로키오, 젤리니, 잠블로나 등의 조각 작품이 저자의 심미적인 문장으로 살아난다.

피렌체의 대표적인 건축물도 '인문주의'라는 렌즈를 매개로 소개된다. 우피치 미술관, 피티 궁, 아카데미아 미술관과 그곳에 소장돼 있는 예술작품을 특유의 인문학적 시각으로 풀어내는 저자의 내공이 만만치 않다.

베기오 다리에 있는 바사리의 비밀 북도에서는 피렌체의 쇠퇴와 메디치 가문의 멸망을 읽고, 지금의 통치자들이 어떤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지도 짚어본다. 과거의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

가들, 그리고 시민들의 자취를 따라 걸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를 조명한다.

피렌체 도시와 관련한 인상 깊은 일화도 있다. 1944년 나치군은 피렌체를 점령했다가 철수하면서 아르노 강에 있는 모든 다리를 폭파했다. 당시 독일군 최고 사령관 게르하르트 볼프는 베기오 다리만큼 폭파하지 않았다.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것이 피렌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피렌체의 수많은 인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천재라고 불리던 그들도 처음부터 천재는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때로는 짜질한 시절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수준 높은 정치력, 피렌체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그들을 길러낸 도량이었다"고 말한다. <호미·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인슈타인 유산 '블랙홀과 우주의 원리' 해석



블랙홀과 시간여행
김 S. 손 지음

1915년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을 통합해 시공간이라 부르는 이론을 제시하며 시공간이 평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공간은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서 휘어지고 뒤틀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시공간이 거의 평평하기 때문에 보통 상황에서 휘어짐은 별개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드넓은 우주에서 훨씬 놀라운 것을 말해준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명예교수이자 물리학의 거장인 김 S. 손이 펴낸 '블랙홀과 시간여행'은 블랙홀을 어떻게 발견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사실 블랙홀에 대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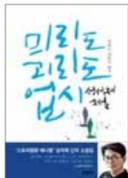
구는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관찰에 의한 결과가 아닌, 인간의 사고만으로 축출된 과학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이론이다.

1915년 11월에 등장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은, 등장 직후인 1920년대 초 뉴턴의 중력이론과 아긋났던 수성의 운동을 설명했고, 웜홀 관측소에 있는 허블망원경으로 멀리 떨어진 성운에서 오는 빛의 적색 이동을 관측하면서 확증했다. 이후 블랙홀 개념이 추측의 형태로 제시됐으며, 점차 상대성 원리에도 블랙홀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저자는 30년간 아인슈타인이 후세에 남긴 상대성 원리와 우주에 대한 상대성 원리의 예측을 이해하는 탐구를 진행했다. 그 탐구는 블랙홀과 백색왜성, 중성자별, 중력파, 시간 뒤틀림, 타임머신 같은 것들로 그를 안내했다.

<반니·4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 우는 자들을 위한 노래



미리도 괴리도 업시
성석제 지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실한 농부처럼 끊임없이 소설을 써왔던 이야기꾼 성석제가 신작 소설집을 펴냈다. 지난 2014년 '투명인간' 이후 2년만에 펴낸 '미리도 괴리도 업시'에서 작가는 특기인 화려한 입담을 선보인다.

'미리도 괴리도 업시'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에서 인용한 것으로 '미워할 이

도 사랑할 이도 없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청산별곡에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저서 우니노라"고 한탄하며 청산으로 숨어들기를 기원했던 어느 가여운 이가 있었다.

반면 성 작가의 소설에는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과 맞닥뜨리는 이들이 있다.

책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집필한 여덟 편의 단편이 담겨 있는데, 작가가 1996년 첫 단편집 '내 인생의 4.5초'를 출간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에 펴낸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문학동네·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소에 대한 철학적 사색의 역사 시도



장소의 운명
에드워드 S. 케이시 지음

우리는 모두 어디가에 존재하고 있다. 어디가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장소 안에 있다는 얘기다. 무엇을 하든 장소 안에 있는 것이고, 장소 안에서 살고 장소 안에서 죽는다.

미국의 철학자 에드워드 S. 케이시가 쓴 '장소의 운명'은 서양 철학사에서 '장소'라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

로 간주했는지, 장소에 대한 철학적 사색의 역사를 시도한 책이다. "현대 서양 사상에 너무나 깊이 잠들어 있는 장소라는 개념을 깨워 그것이 다시 한 번 철학적 논의의 밝은 별을 쬐도록 해주는 것"이 저자가 책을 펴낸 이유다.

1부에서는 신화나 종교의 창조 서사를 검토한다. '티마이오스'에 나타난 플라톤의 준신화적 우주론뿐 아니라 '자연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장소를 세세하게 다룬 것에도 주목한다. 2부에서는 헬레니즘 및 신플라톤주의 사상부터 중세 및 르네상스의 사유에 이르는 굴곡진 도정을 따라간다.

<에코리브르·5만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가발

빛가람로 전면부에 위치
비전타워 11층 스카이라운지
파격 분양 및 임대

- 나주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메인도로변이라 광고효과 최고!
- 지상 11층, 지하 3층까지의 넉넉한 주차공간, 각종 병·의원 및 업무시설 입점
- 11층 절반은 골프존이 현재 입점해 있으며, 호수공원 전망 탁월~
- 11층만의 특별한 공간, 야외테라스!
- 주변 배후세대 5000여가구 밀집

권장업종
키즈카페, 유틸리티센터, 스카이라운지, 고급중식당, 뷔페등
• 11층 전용면적 178평

비전타워 분양 대행사 비전공인중개사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685, 비전타워106호)
대표 박주연 010-4141-5300 / 061)335-0002